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제천시, 스티로폼 재활용 최우수 기관 선정

충청북도 제천시가 전국에서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지명석·한국바스프 대표이사 사장)는 지난달 27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충청북도 제천시를 최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제천시는 2007년 한 해 동안 스티로폼 81톤(2.5톤 차량 812대분)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올려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천시는 자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준공하고 166㎡ 규모의 스티로폼 감용건물동을 건립 운영하면서 감용기 180kg/h 1대와 예비 1대 등 총 2대를 가동하여 스티로폼 81톤을 재활용 하였는데 경제적 가치로는 이산화탄소 발생 4.794톤/년 감축, 100ℓ 종량제봉투 81,200장(1억 13백만 원) 절약, 쓰레기매립장 812평(높이 3m)을 재사용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제천시는 단체장 및 담당자의 높은 관심과 재활용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주민공모제에 의한 자원관리센터 부지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2003년 기공하여 금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비 468억원 규모의 최첨단 생활쓰레기종합단지에는 매립 및 소각 시설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시설과 주민 편익시설 등도 있다.

또한 제천시는 재활용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원관리센터 내에 재활용 전시장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주민 2,837명을 대상으로 109회에 걸쳐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홍보물 200천매를 제작 배포하고 제천시 직영차량 6대와 환경미화원 등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재활용이 생활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선례를 통해 타지자체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로 서울 양천구, 부산 동래구,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경기 고양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북 김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1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협회는 최우수지자체에 환경부 장관 표창 외에 상패 및 부상 500만원과 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사진액자 1상자(40개)를, 우수지자체 15개소에는 상패 및 부상 100만원과 사진액자 각 1상자씩을 수여했다.

부상은 각 지자체 환경미화원 자녀의 장학금 등 청소 담당직원의 복리후생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스티로폼 재활용 유공자 (주)하이우드 안윤식 이사 등 5명을 표창하고 최우수지자체 재활용 수범 사례 발표 등의 행사도 함께 열었다. (K)

